

비합리적 신념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Irrational Belief and Social Support on Adolescents' Social Anxiety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석사수료 최 영 숙
부 교수 김 정 민*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Myongji Univ.
Master Course : Choi, Young-Sook
Associate Professor : Kim, Jung-Min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irrational belief and social support on adolescents' social anxiety. Questionnaires regarding irrational belief, social support, and social anxiety were administered to 566 2nd and 3rd grade middle-school students in Gyeonggi Province. Finally 523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statistically analyzed through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hierarchical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While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anxiety, irrational belief, and social support sources, no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types were observed. 2) While social anxiety and irrational belief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social anxiety and social support revealed a negative correlation. Additionally, irrational belief and social support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3) Irrational belief(catastrophizing, extreme anxiety and fear, personal perfection, and helplessness), emotional social support, and social support from friend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social anxiety. 4) Irrational belief which predicted each social anxiety subtype was varied.

▲주요어(Key Words) : 사회불안(social anxiety), 비합리적 신념(irrational belief),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청소년(adolescent)

I. 서 론

사회불안은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두려움으로 정의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이러한 사회불안의 평생 유병률은 13.3%에 이르며(Kessler et al., 1994),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rossman et al., 2001; Wittchen,

Stein, & Kessler, 1999). 최근 조사에 따르면 사회불안은 아동 및 청소년기의 내면화 장애들 중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Johnson et al., 2005). 아동 및 청소년기의 사회불안은 주로 학급 또래들 앞에서 말하기나 읽기, 음악 또는 체육 활동, 수업 중 칠판에 나가 쓰기와 같은 수행 상황이나, 대화 시작하기, 새로운 사람 만나기, 새로운 학교에 등교하기 등의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일어난다(Beidel et al., 2001; Morris, 2004). 이러한 사회불안의 발병 시작 평균 연령은 초기 청소년기~후기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 교신저자 : 김 정 민(E-mail : jmkim122@mju.ac.kr)

(APA, 1994), 이들 14~24세 청소년 여와와 남아의 유병률은 각각 9.5%와 4.9%로 성차이를 보였다(Wittchen et al., 1999).

아동 및 청소년기의 사회불안은 장기적인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기 쉬운데, 구체적으로 우울, 낮은 자존감과 사회적 유능감, 외로움 등과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 상황의 회피, 학교 거부, 물질 남용에까지 이를 수 있다(Costello et al., 2003; Essau et al., 2002; Stein et al., 2001; Van Ameringen et al., 2003). 특히 사회불안은 또래에 의한 거부 또는 또래 간 부정적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Ginsburg et al., 1998, Inderbitzen et al., 1997) 또래관계 중심의 청소년기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수 있다. 더욱이 아동 및 청소년기에 발병한 사회불안은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흔하며 성인기 사회불안에 비해 그 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tein et al., 2001; Wittchen et al., 1998). 그러므로 아동 및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관련 요인 및 기제를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불안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동 및 청소년기 사회불안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Beidel et al., 2001).

일반적으로 사회불안의 기제는 주로 인지적 모형에 의해 설명된다(Beck et al., 1985; Clark & Wells, 1995; Heimberg & Becker, 2002). 인지적 모형에 의하면 사회불안은 개인의 특정 인지적 내용에 따라 결정되고 유지되며, 이러한 인지적 내용은 개인의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와 역기능적 신념으로 알 수 있다. Clark와 Wells(1995)는 사회불안과 관련이 있는 역기능적 비합리적 신념들로 사회적 수행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기준(예, 나는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만 해), 사회적 평가에 대한 조건적 신념(예, 내가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보 같다고 생각할 거야),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 부정적 신념(예, 나는 무능하고 어리석어) 등을 제시하였다. 즉, 사회불안이 높은 경우 사회적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자신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다고 믿으며, 자신의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지위 및 가치 상실, 거부 등 과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Rapee와 Heimberg(1997)는 사회불안이 높은 경우 모든 타인들을 비판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타인에 의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실제로 사회불안이 높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애매모호한 사회적 사건을 위협적인 상황으로 해석하거나 평이한 부정적 사건을 치명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높았다(Clark & Stopa, 1994; Stopa & Clark, 2000). 그러나 이러한 사회불안 관련 비합리적 신념들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사회불안의 임상적 기준을 충족하는 소집단의 사례별 면접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한편, 국내의 경우 조용래와 원호택(1999)이 사회불안의 역기능적 신념검사 개발연구에서 사회적 자기에 대한 부정적 개념,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 및 실수에 대한 지나친 염려가 사회불안과 연관이 있음을 보고한 것이 있다. 그 외 최정훈과 이정윤(1994)이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비합리적 신념들로 부정적 결말에 대한 예측, 지나친 불안 및 염려, 개인적 완벽 성향, 타인의 인정에 대한 요구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모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다. 이에 비해 청소년기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시기일 뿐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인지적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Beidel & Morris, 1995)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 부모, 교사, 또래 등 주변 타인들의 엄정한 평가에 대해 불안을 경험하기 쉽다(Caster et al., 1999).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가 지각하는 그들의 정체성 사이의 차이를 분별하기 시작함으로써 사회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청소년기 특성을 감안할 때 사회불안과 관련이 있는 비합리적 신념들의 양상이 발달 단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각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받게 되는 사회적 피드백이 다르므로 이로 인한 비합리적 신념의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더욱이 사회불안은 다시 타인 앞에서 특정과제를 수행하여 평가를 받는 것과 관계가 있는 수행불안과 대화하기, 낯선 곳에 가기 등 일상적인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기대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대인관계불안으로 나뉠 수 있다(APA, 1994). 이 둘은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Rapee, 1995) 이에 따른 비합리적 신념의 양상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행상황과 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성별에 따라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것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비합리적 신념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불안의 각 하위유형과 연관이 있는 비합리적 신념들의 특정 양상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개개인의 비합리적 사고 및 신념 패턴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과 더불어 부모의 양육 태도 및 가족 환경과 같은 사회 환경적 요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Hudson & Rapee, 2000). 구체적으로 사회불안을 가진 성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아동기 때 자신의 부모를 과잉보호적이거나(Bruch & Heimberg, 1994), 거부적 혹은 정서적으로 지지적이지 않거나(Arrindell et al., 1983; Parker, 1979), 일상적인 사회적 경험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타인에 대해 염려하며, 가족 간의 교제를 강조하지 않는 것(Bruch, 1989; Bruch & Heimberg, 1994; Bruch et al., 1989) 등으로 기술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회고에 의한 보고를 기초로 한 것들로 최근에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Boe-

gels et al., 2001; Caster et al., 1999; Johnson et al., 2005). 이들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사회불안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그 부모를 타인의 의견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거부적이거나 정서적 온정을 덜 보이며, 자신의 수행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영향 이외에 사회불안과 관련이 있는 사회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불안과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Calsyn et al., 2005; Ham et al., 2005; Kraus et al., 2001; Landman-Peeters et al., 2005).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가리킨다(Calsyn et al., 2005).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우울이나 불안 등 개인의 정신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을 뿐 아니라(Pierce et al., 2000; Rhodes & Lakey, 1999; Turner, 1999), 사회불안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하는 특성상(Rapee, 1995) 사회불안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선행연구 결과 대체적으로 사회불안이 높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보고하였다(Calsyn et al., 2005; Kraus et al., 2001).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역시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지지원 및 지지 유형들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 청소년기는 아동기 혹은 성인기와 달리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시기로 부모, 교사, 또래 등 청소년기 특유의 다양한 지지원을 갖게 되며 각 지지원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달라지게 된다. 또한 청소년기는 아동기~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로서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지지원들이 청소년을 보는 관점도 일관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청소년기에 들어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패턴은 더욱 뚜렷한 성 차이를 보이므로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다르게 지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청소년기 사회불안과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는 성인기와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따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불안과 다양한 사회적 지지원 및 지지 유형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비합리적 신념과 사회적 지지원 및 지지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불안의 각 하위유형인 수행불안과 대인관계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비합리적 신념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 신념, 사회적 지지 및 사회불안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 사회적 지지 및

사회불안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이 사회불안의 각 하위유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2개 중학교 2, 3학년 총 566명을 대상으로 비합리적 신념, 사회적 지지, 사회불안에 관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 중 응답이 누락된 질문지를 제외한 523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학생이 208명(39.8%), 여학생이 315명(60.2%)이었으며, 학년은 2학년이 196명(37.5%), 3학년이 327명(62.5%)이었다.

2. 연구도구

1)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

아동용 사회공포증 및 불안 척도(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PAI-C, Beidel, Turner, & Morris, 1995)와 개정판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 SAS-A, LaGreca & Stone, 1993)를 문혜신과 오경자(200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40 문항으로 하위 척도는 수행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회피행동사고,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비주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수행불안을 제외한 다른 하위 척도들은 대인관계 불만에 포함된다.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3이었고, 각 하위 척도별로는 수행불안이 .80,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82, 회피행동사고가 .79,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80, 비주장성이 .79로 나타났다.

2) 비합리적 신념 척도

비합리적 신념 검사(Irrational Belief Test : IBT, Jones, 1969)를 이정윤(199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44문항으로 하위 척도는 인정에 대한 요구, 개인적 완벽, 파국화, 과잉불안염려, 무기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비합리적 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2였고, 각 하위 척도별로는 인정에 대한 요구가 .66, 개인

적 완벽이 .66, 과국화가 .71, 과잉불안염려가 .65, 무기력이 .70으로 나타났다.

3) 사회적 지지 척도

청소년 사회적 지지 지각 척도(박지원, 1985)를 윤혜정(1993)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원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 친구, 교사이며 각 문항은 이들 각각이 네 가지 유형의 사회적 지지(정서, 정보, 평가, 물질)를 얼마나 제공하는지에 대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5였고, 각 하위 척도별로는 정서적 지지가 .93, 정보적 지지가 .93, 평가적 지지가 .92, 물질적 지지가 .94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예비 조사는 2007년 2월 10일 경기도 소재 1개 중학교 2학년생 10명을 대상으로 문항 내용 이해 정도, 소요 시간, 응답 방식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예비 조사 결과 문항을 이행하고 응답하는 것에 별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하고 예비 조사에 사용된 질문지를 수정 없이 그대로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07년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경기도 이천 및 양평 소재 2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과 여학생 총 566명을 대상으로 비합리적 신념, 사회적 지지 및 사회불안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답입교사를 통하여 배부 및 회수되었고, 답입교사의 감독 하에 각 반별로 실시하였다. 전체 질문에 대한 응답 시간은 약 40분~50분 정도 소요되었다. 질문지는 총 566부가 배부되었으며 회수된 검사지 중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어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질문지를 제외한 총 523부(남학생 208부, 여학생 31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 검증(Cronbach's α), t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및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 신념, 사회적 지지 및 사회불안의 차이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 신념, 사회적 지지 및 사회불안

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 신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정요구($t=-4.71$, $p<.001$), 과국화($t=-2.30$, $p<.05$), 과잉불안염려($t=-4.59$, $p<.001$), 무기력($t=-2.43$, $p<.05$), 비합리적 신념 총점($t=-3.93$,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인정요구, 과국화, 과잉불안염려, 무기력 및 전체 비합리적 신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t=2.11$, $p<.05$), 형제($t=-1.92$, $p<.05$), 친구($t=-6.01$,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아버지 지지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형제 지지원과 친구 지지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지지원과 교사 지지원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사회불안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t=-2.11$, $p<.05$)과 비주장성($t=-2.06$,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비주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불안, 회피행동사고, 낮선 것에 대한 두려움, 사회불안 총점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비합리적 신념, 사회적 지지 및 사회불안 간의 관계

비합리적 신념, 사회적 지지 및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사회불안은 비합리적 신념($r=.43$)과 정적 상관을, 사회적 지지($r=-.22$)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수행불안은 비합리적 신념 중 과국화($r=.20$)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사회적 지지 유형 중 정서적 지지($r=-.18$)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사회적 지지원 중 어머니($r=-.15$)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비합리적 신념 중 인정에 대한 요구($r=.45$)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사회적 지지 유형 중 평가적 지지($r=-.23$)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사회적 지지원 중 형제($r=-.21$)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회피행동 사고는 비합리적 신념 중 과잉불안염려($r=.24$)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사회적 지지 유형 중 정서적 지지($r=-.28$)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사회적 지지원 중 친구($r=-.25$)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낮선 것에 대한 두려움은 비합리적 신념 중 과국화($r=.27$)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사회적 지지 유형 중 정서적 지지($r=-.16$)와

<표 1>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 신념, 사회적 지지 및 사회불안의 차이

구 분	남학생(N=208)		여학생(N=315)		t
	M	SD	M	SD	
비합리적 신념					
인정에 대한 요구	27.69	3.95	29.37	4.00	-4.71 ***
개인적 완벽	31.34	4.87	31.25	4.45	.21
과국화	26.98	3.81	27.76	3.78	-2.30 *
과잉불안 염려	24.01	4.26	25.78	4.33	-4.59 ***
무기력	22.14	4.44	23.04	3.97	-2.43 *
비합리적 신념 총점	132.16	14.56	137.20	14.20	-3.93 ***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유형					
정서적 지지	130.76	20.38	131.79	21.31	-.55
정보적 지지	113.86	17.75	113.54	18.52	-.19
평가적 지지	110.18	19.32	110.50	19.70	-.18
물질적 지지	107.40	18.96	109.47	19.35	-1.21
사회적 지지 총점	462.20	70.00	465.30	74.28	-.48
사회적 지지원					
아버지	100.65	20.86	96.32	24.31	2.11 *
어머니	105.67	18.19	102.85	20.02	1.64
형 제	84.66	22.32	88.35	21.00	-1.92 *
친 구	86.69	16.52	95.33	15.77	-6.01 ***
교 사	84.52	17.80	82.45	19.61	1.23
사회불안					
수행불안	21.35	6.79	20.95	6.68	.66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19.88	6.65	21.13	6.61	-2.11 *
회피행동사고	15.00	4.67	14.58	4.37	1.04
낮선 것에 대한 두려움	9.44	3.16	9.48	2.98	-.16
비주장성	14.42	4.83	15.29	4.66	-2.06 *
사회불안 총점	80.08	20.74	81.43	20.50	-.73

*p<.05, ***p<.001

<표 2> 비합리적 신념, 사회적 지지 및 사회불안 간의 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사회 불안																			
1. 수행 불안																			
2.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45**																		
3. 회피행동사고	.62**	.52**																	
4. 낮선 것에 대한 두려움	.62**	.55**	.66**																
5. 비주장성	.55**	.54**	.50**	.63**															
비합리적 신념																			
6. 인정에 대한 요구	.10**	.45**	.06	.13**	.21**	.26**	.48**												
7. 개인적 완벽	.17**	.37**	.19**	.22**	.20**	.29**	.31**												
8. 과국화	.20**	.33**	.21**	.27**	.25**	.32**	.42**	.27**											
9. 과잉불안 염려	.16**	.41**	.24**	.25**	.24**	.33**	.42**	.37**	.40**										
10. 무기력	.13**	.35**	.22**	.20**	.22**	.28**	.28**	.37**	.16**	.38**									
사회적 지지																			
11. 정서적 지지	-.18*	-.22**	-.28**	-.16**	-.11*	-.24**	-.04	-.09*	-.11*	-.10*	-.25**	-.17**							
12. 정보적 지지	-.16**	-.22**	-.22**	-.15**	-.09*	-.22**	-.06	-.08	-.12**	-.10*	-.24**	-.17**	.85**						
13. 평가적 지지	-.13**	-.23**	-.22**	-.14**	-.08	-.21**	-.06	-.08	-.12**	-.10*	-.24**	-.17**	.86**	.84**					
14. 물질적 지지	-.13**	-.19**	-.22**	-.11*	-.04	-.18**	-.01	-.06	-.11*	-.09*	-.19**	-.13**	.78**	.77**	.80**				
15. 아버지	-.13**	-.16**	-.17**	-.09*	-.06	-.16**	-.04	-.02	-.09*	-.07	-.21**	-.12**	.76**	.77**	.78**	.73**	.82**		
16. 어머니	-.15*	-.17**	-.16**	-.11*	-.07	-.17**	-.05	-.06	-.07	-.12**	-.19**	-.14**	.69**	.68**	.73**	.70**	.75**	.66**	
17. 형 제	-.12**	-.21**	-.23**	-.14**	-.10*	-.20**	-.07	-.04	-.15**	-.09*	-.14**	-.14**	.72**	.70**	.70**	.67**	.75**	.48**	.42**
18. 친 구	-.13**	-.17**	-.25**	-.15**	-.05	-.19**	.07	-.07	-.04	-.04	-.13**	-.06	.58**	.58**	.60**	.64**	.65**	.34**	.33**
19. 교 사	-.06	-.14**	-.13**	-.06	-.02	-.11*	-.05	-.12**	-.09	-.04	-.23**	-.15**	.65**	.63**	.59**	.54**	.65**	.41**	.28**

*p<.05, **p<.01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사회적 지지원 중 친구($r=-.15$)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비주장성은 비합리적 신념 중 파국화($r=.25$)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사회적 지지 유형 중 정서적 지지($r=-.11$)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사회적 지지원 중 형제($r=-.10$)와 유일하게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한편 비합리적 신념은 사회적 지지($r=-.17$)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완벽은 사회적 지지 유형 중 정서적 지지($r=-.09$)와, 사회적 지지원 중 교사($r=-.12$)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파국화는 사회적 지지 유형 중 평가적 지지($r=-.12$)와, 사회적 지지원 중 형제($r=-.15$)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과잉불안염려는 사회적 지지 유형 중 정서적 지지($r=-.10$)와, 사회적 지지원 중 어머니($r=-.12$)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무기력은 사회적 지지 유형 중 정서적 지지($r=-.25$)와, 사회적 지지원 중 교사($r=-.23$)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3. 비합리적 신념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비합리적 신념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검증 결과 D-W계수가 1.94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차한계가 .68-.89로 .1이상이고 VIF값이 1.02-1.84로 모두 10이하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 유형들을 투입한 결과 개인적 완벽($\beta=.11$), 파국화($\beta=.19$), 과잉불안염려($\beta=.14$), 무기력($\beta=.14$)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총 설명력은 19%였다($F=24.58$, $p<.001$). 2단계에 사회적 지지 유형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개인적 완벽($\beta=.11$), 파국화($\beta=.18$), 과잉불안염려($\beta=.14$), 무기력($\beta=.10$)이 높을수록, 정서적 지지($\beta=-.19$)가 낮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총 설명력은 3% 증

<표 3> 비합리적 신념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Beta	R ²	R ² 변화량	F	
사회불안	1단계	인정에 대한 요구	.05	.19	24.58***	
		개인적 완벽	.11*			
		파국화	.19***			
		과잉불안염려	.14**			
		무기력	.14**			
	2단계	인정에 대한 요구	.06	.22	.03	15.95**
		개인적 완벽	.11*			
		파국화	.18***			
		과잉불안염려	.14**			
		무기력	.10*			
		정서적 지지	-.19*			
		정보적 지지	-.05			
	평가적 지지	.04				
	3단계	물질적 지지	.03	.24	.02	11.94*
		인정에 대한 요구	.07			
개인적 완벽		.11*				
파국화		.18***				
과잉불안염려		.13**				
무기력		.11*				
정서적 지지		-.20*				
정보적 지지		-.05				
평가적 지지	.09					
물질적 지지	.10					
어머니	-.03					
형제	-.05					
친구	-.13*					
교사	.08					

* $p<.05$, ** $p<.01$, *** $p<.001$

가한 22%였다($F=15.95, p<.01$). 3단계에 사회적 지지원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개인적 완벽($\beta=.11$), 파국화($\beta=.18$), 과잉불안염려($\beta=.13$), 무기력($\beta=.11$)이 높을수록, 정서적 지지($\beta=-.20$), 친구의 지지($\beta=-.13$)가 낮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총 설명력은 2% 증가한 총 24%였다($F=11.94, p<.05$).

4. 비합리적 신념이 사회불안의 각 하위 유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앞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비합리적 신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이 사회불안의 각 하위 유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시 단계적 (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 검정 결과 D-W계수가 1.98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차한계가 .69-.97로 .1 이상이고 VIF값이 1.03-1.44로 모두 10이하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수행불안은 파국화($\beta=.20$), 개인적 완벽($\beta=.12$)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국화의 설명력은 4%($F=22.42, p<.001$), 개인적 완벽이 추가되어 2% 증가한 총 설명력은 6%였다($F=15.14, p<.0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인정에 대한 요구($\beta=.45$), 과잉불안염려($\beta=.27$), 무기력($\beta=.18$), 파국화($\beta=.14$), 개인적 완

벽($\beta=.09$)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에 대한 요구의 설명력은 21%($F=135.14, p<.001$), 과잉불안염려가 추가되어 6% 증가한 27%($F=93.86, p<.001$), 무기력이 추가되어 3% 증가한 29%($F=71.76, p<.001$), 파국화가 추가되어 2% 증가한 31%($F=56.12, p<.001$), 개인적 완벽이 추가되어 1% 증가한 총 설명력은 32%였다($F=47.59, p<.05$).

회피행동사고는 과잉불안염려($\beta=.24$), 무기력($\beta=.15$), 파국화($\beta=.13$), 인정에 대한 요구($\beta=.10$), 개인적 완벽($\beta=.11$)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불안염려의 설명력은 6% ($F=32.89, p<.001$), 무기력이 추가되어 2% 증가한 8%($F=21.80, p<.01$), 파국화가 추가되어 2% 증가한 9%($F=17.62, p<.01$), 인정에 대한 요구가 추가되어 1% 증가한 10%($F=14.42, p<.05$), 개인적 완벽이 추가되어 1% 증가한 총 설명력은 11%였다($F=12.53, p<.05$).

낮선 것에 대한 두려움은 파국화($\beta=.27$), 과잉불안염려($\beta=.17$), 개인적 완벽($\beta=.12$)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국화의 설명력은 7%($F=40.38, p<.001$), 과잉불안염려가 추가되어 3% 증가한 10%($F=28.05, p<.001$), 개인적 완벽이 추가되어 1% 증가한 총 설명력은 11%였다($F=21.21, p<.01$).

비주장성은 파국화($\beta=.25$), 무기력($\beta=.18$), 인정에 대한 요구($\beta=.11$)가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국화의 설명력은 7%($F=35.59, p<.001$), 무기력이 추가되어 3% 증가한 10% ($F=27.33, p<.001$), 인정에 대한 요구가 추가되어 1% 증가한 총 설명력은 11%였다($F=20.32, p<.05$).

<표 4> 비합리적 신념이 사회불안의 각 하위 유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사회불안		B	Beta	R ²	R ² 변화량	F
수행불안	파국화	.36	.20***	.04		22.42***
	개인적 완벽	.18	.12**	.06	.02	15.14**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인정에 대한 요구	.74	.45***	.21		135.14***
	과잉불안염려	.41	.27***	.27	.06	93.86***
	무기력	.29	.18***	.29	.03	71.76***
	파국화	.25	.14***	.31	.02	56.12***
	개인적 완벽	.13	.09*	.32	.01	47.59*
회피행동사고	과잉불안염려	.25	.24***	.06		32.89***
	무기력	.16	.15**	.08	.02	21.80**
	파국화	.16	.13**	.09	.02	17.62**
	인정에 대한 요구	.11	.10*	.10	.01	14.42*
	개인적 완벽	.10	.11*	.11	.01	12.53*
낮선 것에 대한 두려움	파국화	.22	.27***	.07		40.38***
	과잉불안염려	.12	.17***	.10	.03	28.05***
	개인적 완벽	.08	.12**	.11	.01	21.21**
비주장성	파국화	.32	.25***	.07		35.59***
	무기력	.20	.18***	.10	.03	27.33***
	인정에 대한 요구	.13	.11*	.11	.01	20.32*

* $p<.05$, ** $p<.01$, *** $p<.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중학교 2, 3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합리적 신념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비합리적 신념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인정에 대한 요구, 과잉불안염려, 무기력, 과잉화가 높았으며 전체 비합리적 신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인정에 대한 요구와 과잉불안염려가 가장 높았는데, 인정에 대한 요구의 경우 최근 성취와 업적 지향의 사회적 기대는 남아 뿐 아니라 여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성취를 통한 능력 인정이 여아에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아직까지는 여아의 경우 남아에 비해 인정을 획득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여건이 불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갈등이나 비합리적 사고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편, 과잉불안염려의 경우 이 시기의 청소년 여아가 남아에 비해 불안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Beidel & Turner, 1998) 여아의 과잉불안염려 신념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처럼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합리적 신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전반적인 비합리적 신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이혜진, 2001).

반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Ham et al., 2005; Landman-Peeters et al., 2005)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회적 지지 유형 및 지지원을 각각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사회적 지지 유형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사회적 지지원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아버지 지지원이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형제 지지원과 친구 지지원이 높았다. 이는 청소년기가 어머니의 직접적 돌봄에서 벗어나는 시기인 동시에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성역할 모델링 대상인 아버지와의 관계 형성이 빈번해지는 것에 기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청소년기 여아의 경우 남아에 비해 비슷한 연령의 형제나 또래 친구의 지지가 높게 나타난 것은 여아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타인의 도움을 수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허용되기 쉬운 것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 여아는 남아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타인에게 정서적 지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윤미경, 1998; Seiffge-Krenke, 1995; Taylor et al., 2000). 더욱이 여아의 경우 친밀한 대인 관계를 갖는 일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하므로(Wade & Kendler, 2000) 사

회적 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데 더욱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회불안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비주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비주장성이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 중 대인관계불안에 속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여아의 경우 남아에 비해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Kendler et al., 2001)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따르는 불안보다 대인관계불안이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비주장성의 경우 여아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성역할에 관한 사회문화적 영향이 내면화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 사회적 지지, 사회불안 간의 관계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먼저 사회불안은 비합리적 신념과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사회적 지지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사회불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의 사회불안과 비합리적 신념 간의 정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이정운, 1999; 조용래, 1998; 최정훈·이정운, 1994; Glass & Furlong, 1990) 사회불안의 인지적 모형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부정적이고 왜곡된 자동적 사고 및 신념과 사회불안이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사회적 지지와 사회불안 간의 부적 상관은 사회불안에 미치는 외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암시한다. 사회적 관계로부터 오는 지지 및 관심과 사회불안이 상호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과 사회적 지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에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우선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끌어내기 어려운 정서적, 행동적 특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자체를 왜곡되게 지각하는 것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는 비합리적 신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지지 유형 및 지지원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합리적 신념 중에서는 과잉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들과 유사하다(정미정·정현희, 2002; 최정훈·이정운, 1994). 한편 사회적 지지 유형 및 지지원 중에서는 정서적 지지와 친구 지지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인 사회불안을 낮추는 데 정보, 평가 및 물질적 지원보다 정서적 지원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가리킨다. 그러나 앞서 사회불안 중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적 지지 중 평가적 지지와 가장 큰 상관을 보였음을 주목할 때 사회불안

의 하위 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유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원의 경우 유일하게 친구 지지원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드러난 것은 부모나 교사 등 성인의 영향보다 또래의 영향이 극대화되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사회불안 청소년의 우정 등 친구 및 또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예, 사회적 기술 훈련 등) 뿐 아니라 또래로 구성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실시가 사회불안 감소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비합리적 신념임을 고려할 때 그에 비해 사회적 지지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관련이 있는 특정 비합리적 신념들은 과거 경험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왔으므로 이것들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가 제공된다고 해서 사회불안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장기간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가 주어질 때에야 비로소 비합리적 신념(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사회불안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또 다른 견해는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지지 정도를 가리키므로 실제 객관적 지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인지적 특성, 즉 비합리적 신념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회적 지지가 비합리적 신념과 독립적으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비합리적 신념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불안의 경우 비합리적 신념 중 파국화, 개인적 완벽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정 과제 수행 시 성공과 실패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 비합리적 신념 중 인정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타인으로부터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고 믿는 것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잘 예측해 준다는 것이다. 또한 회피행동사고의 경우 비합리적 신념 중 과잉불안염려와 무기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정 일에 압도되어 지나친 불안을 보고하는 것과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믿는 것이 회피행동사고를 가장 잘 예측해 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사회불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지행동치료를 커다란 함의를 갖는다. 인지행동치료를 부적응을 초래하는 왜곡되고 비합리적인 사고 및 신념을 보다 합리적인 대안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 청소년의 사회불안 유형에 따라 불안

을 야기하는 비합리적 신념의 내용이 다르므로 먼저 이를 파악하여 치료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 초기에 사회불안의 증가가 보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Wittchen et al., 2001) 연구 대상을 중학교 2, 3학년생 일반 집단으로 선정하였으나 차후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 집단을 포괄하는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불안이나 신념과 같은 내재화 개념 측정은 개인의 주관적인 자기보고식 평가가 정확하다는 점을 감안하여(Klein, 1991)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나 자신의 수행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사회불안의 특성상 실제 사실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반응을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기보고식 평가 이외에 타인에 의한 평정 등 객관적이고 다양한 평가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문혜신·오경자(2002).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29-443.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미경(1998).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 존중감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정(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지지 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운(1996). **사회불안증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와 노출치료의 효과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운(1999). 사회불안과 우울의 인지특성: 비합리적신념, 역기능적 태도, 핵심신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199-211.
- 이혜진(2001). **비합리적 신념이 대학생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미정·정현희(2002). 자의식, 자기개념, 비합리적 신념이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39-53.
- 조용래(1998). **역기능적 신념과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가 사회 공포증상에 미치는 영향**.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용래·원호택(1999). 사회공포증에 대한 인지적 평가 III: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18(1), 141-162.
- 최정훈·이정운(1994). 사회적 불안에서의 비합리적 신념과 상황요인. 한국 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6(1), 21-47.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rrindell W. A., Emmelkamp P. M. G., Monsma A., & Brillman, E. (1983). The role of perceived parental rearing practices in the etiology of phobic disorders: a controlled. stud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3, 183-187.
- Beck, A. T., Emery, G., & Greenberg, R. L.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Y.: Basic Books.
- Beidel, D. C., Turner, S. M. (1998). *Shy children, phobic adul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eidel, D. C., Turner, S. M., & Morris, T. L. (1995). A new inventory to assess childhood social anxiety and phobia: The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7, 73-79.
- Beidel, D. C., Ferrell, C., Alfano, C. A., & Yeganeh, R. (2001). The treatment of childhood social anxiety disorder, *Social Anxiety Disorder*, 24(4), 831-846.
- Bruch, M. A. (1989). Familial and developmental antecedents of social phobia: Issues and findings. *Clinical Psychology Review*, 9, 37-47.
- Bruch, M. A., & Heimberg, R. G. (1994).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parent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between generalized and nongeneralized social phobic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8, 155-168.
- Bruch, M. A., Heimberg, R. G., Berger, P., & Collins, T. M. (1989). Social phobia and perceptions of early parent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nxiety Research*, 2, 57-65
- Boegels, S.M., van Oosten, A., Muris, P., & Smulders, D. (2001). Familial correlates of social anxiet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9, 273-287.
- Calsyn, R. J., Winter, J. P., & Burger, G. K.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and social support in adolescents: A test of competing models. *Adolescents*, 40, 103-113.
- Caster, J. B., Inderbitzen, H. M., & Hope, D. (1999). Relationship between youth and parent perceptions of family environment and social anxiet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3, 237-251.
- Clark, D. M., & Stopa, L. (1994). *Social phobia and the interpretation of ambiguous and mildly negative social events*. Manuscript in preparation.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pp. 69-93). N.Y.: Guilford Press.
- Costello, E. J., Mustillo, S., Erkanli, A., Keeler, G., & Angold, A. (2003). Prevalence and development of psychiatric disorde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0, 837-844.
- Essau, C. A., Conradt, J., & Peterman, F. (2002). Course and outcome of anxiety disorders in adolescen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6, 67-81.
- Ginsburg, G. S., La Greca, A. M., & Silverman, W. K. (1998). Social anxiety in children with anxiety disorders: Relation with social and emotional functioning.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 175-186.
- Glass, C. R., & Furlong, M. (1990). Cognitive assessment of social anxiety: Affective and behavioral correlat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365-384.
- Grossman, P., Wilhelm, F. H., Sparrow, D., & Kawachi, I. (2001). Gender differences in psychophysiological responses to speech stress among older social phobics: congruence and incongruence between self-evaluative and cardiovascular reactions. *Psychosomatic Medicine*, 63(5), 765-777.
- Ham, L. S., Hayes, S. A., & Hope, D. A. (2005).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for socially anxious individuals. *Cognitive Behaviour Therapy*, 34(4), 201-206.
- Heimberg, R. G., & Becker, R. E. (2002). *Cognitive -behavioral group therapy of social phobia: Basic mechanisms and clinical applications*. N.Y.: Guilford Press.
- Hudson, J. L., & Rapee, R. M. (2000). The origins of social phobia. *Behavior Modification*, 24, 102-129.
- Inderbitzen, H. M., Walters, K. S., & Bukowski, A. L. (1997). The role of social anxiety in. adolescent peer relations: Differences among sociometric status groups and rejected. subgroup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6, 338-348.
- Johnson, H. S., Inderbitzen-Nolan, H. M., & Schapman, A. M. (2005). A comparison between socially anxiou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in youth: a focus on perceived family environment. *Anxiety*

- Disorders*, 19(4), 423-442.
- Jones, R. G. (1969). *The Irrational Beliefs Test*. Wichita, KS: Test Systems, Inc.
- Kendler, K. S., Thornton, L. M., & Prescott, C. A. (2001). Gender differences in the rates of exposure to stressful life events and sensitivity to depressogenic effec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 587-593.
- Kessler, R., McGonagle, K., Zhao, S., Nelson, C., Hughes, M., Eshleman, S., Wittchen, H. U., & Kendler, K. S. (1994). Lifetime and 12-month prevalence of DSM-III-R psychiatric disorders in the United Stat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1, 8-19.
- Kraus, C. A., VanDyke-Skiles, M., DeCoteau, T. J., Norton, P. J., Ham, L. S., Moore, E. L., & Hope, D. A. (2001). *Social support in individual with social anxiety disorder*. Poster presented at the 35th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Philadelphia, PA, USA.
- La Greca, A. M., & Stone, W. L. (1993).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revised: Factor structure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2, 17-27.
- Landman-Peeters, K. M. C., Hartman, C. A., Van der Pompe, G., Den Boer, J. A., Minderaa, R. B., & Ormel, J. (2005)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problems in parent-offspring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and anxiety. *Social Science & Medicine*, 60, 2549-2559.
- Morris, T. L. (2004) Social development. In T. L. Morris, and J.S. March (Eds.), *Anxiety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2nd ed, (pp. 141-163). N.Y.: Guilford .
- Parker, G. (1979).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of agoraphobics and social phobic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5, 555-560.
- Pierce, R., Frone, M., Russell, M., Cooper, M., & Mudar, P. (2000). A longitudinal model of social contact, social support, depression, and alcohol use. *Health Psychology*, 19(1), 28-38.
- Rapee, R. M. (1995). Descriptive psychopathology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pp. 41-68). N.Y.: Guilford Press.
- Rapee, R. M., & Heimberg, R. G. (1997).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anxiety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 741-756.
- Rhodes, G. L., & Lakey, B. (1999).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order: Insights from social psychology. In R. M. Kowalski & M. R. Leary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pp. 281-30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eiffge-Krenke, I. (1995). *Stress, coping and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tein, M. B., Chavira, D. A., & Jang, K. L. (2001). Bringing up bashful baby: Developmental pathways to social phobia. *The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24, 661-675.
- Stopa, L., & Clark, D. M. (2000). Social phobia and the interpretation of social ev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 273 - 283.
- Taylor. S. E., Cousino Klein, L., Lewis, B. P., Gruenewald, T. L., Gurung, R. A. R., & Updegraff, J. A. (2000). Biobehavioral responses to stress in females: Tend-and-befriend, not fight-or-flight. *Psychological Review*, 107, 411-429.
- Turner, R. J. (1999). Social Support and Coping. In A. V. Horwitz and T. L. Scheid, (Ed), *A Handbook for the Study of Mental Health: Social Contexts, Theories, and Systems* (pp. 198-210).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Ameringen, M., Mancini, C., & Farvolden, P. (2003). The impact of anxiety disorders on educational achievement.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7, 561-571.
- Wittchen, H. U., & Fehm, L. (2001). Epidemiology, patterns of comorbidity, and associated disabilities of social phobia. *The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24, 617-641.
- Wade, T. D., & Kendler, K. S. (2000). Absence of interactions between social support and stressful life events in the prediction of major depression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in women. *Psychological Medicine*, 30, 965-974.
- Wittchen, H. U., Nelson, C. B., & Lachner, G. (1998). Prevalence of mental disorders and psychosocial impairments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Psychological Medicine*, 28, 109-126.
- Wittchen, H. U., Stein, M. B., & Kessler, R. C. (1999). Social fears and social phobia in a community sam-

ple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Prevalence, risk factors and co-morbidity. *Psychological Medicine*, 29, 309-323.

□ 접수일 : 2008년 01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04월 07일